

# 영문학의 성과와 위상

한재현\*

## 차례

- I. 인문학의 위상
- II. 숭실의 영문과의 성과와 위상
- III. 제언

## I. 인문학의 위상

현재 한국에서는 인문학의 위상은 그 정체성이 퇴조되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 이유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실용학문에 밀려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들의 연구도 양적으로는 풍성하나 질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인문학의 목표는 원래 삶의 의미나 존재의 당위성에 대한 물음 등의 형이상학적 과제와 관련되어야 하는데 실용성에 밀려 현대인은 고전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인문학이 상당부분 체계적인 과학이 됐다는 견해에 동의하면서 그 위상이 높아졌다는 주장에 찬성하기도 한다.

인문학의 한 분야인 영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지적을 받고 있다. 영문학 전공 교수 중 일부는 영어영문학과 안에서도 영어학과 영어교육 분야의 상대적 발전 때문에 영문학이 위축된다고 느끼고 있다. 영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중에도 세부 전공을 선택할 때 어려운 고전보다 연구하는데 시간이 적게

\* 숭실대 명예교수

걸리는 현대문학을 선호한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각 대학에서 신입교수를 초빙할 때 고전문학 분야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영어영문학과나 영어(교육)과를 졸업했음에도 Shakespeare 작품(번역본포함)을 하나라도 읽기는커녕 그 이름도 못 들었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영문학은 그 위상이 낮아지고 퇴조되어 간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 그런 주장을 할만한 근거가 없거나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1945년 이후 각 대학의 영어영문학과(이하 영문과)의 수와 학생의 수도 많이 증가했으며 학과별 담당 교수의 주당 의무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교수 수는 증가되었다. 교수의 연구 및 강의수행 능력 면에서도 우수성이 인정된다. 각 교수는 해마다 한 두 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어서 그 성과는 놀랍다. 논문의 수보다 질이 낮다고 할지 몰라도 그 질과 양 모두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지금은 각 대학의 교수 수준이 평준화 되었다고 할 만큼 대부분 선진국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우수한 논문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교육시설 면에서도 사계절 내내 수업하기에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영문학의 위상은 상승일로에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 II. 승실 영문과의 성과와 위상

승실의 영어영문학과가 발전해온 과정을 살펴보겠다. 지난 50년 간 전임으로 근무해왔던 교수의 수와 교과과정의 변천과정을 참고하여 학생들을 교육해온 내용을 정리해 봄으로서 그 성과와 위상을 찾아보겠다.

### 1. 교과과정

영어영문학과와 전공은 문학과 어학 둘로 나눌 수 있다. 언어학이 여러 언어의 규칙을 근거로 언어 전체의 보편성을 밝히는 학문이지만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온 언어가 영어로서 이를 자료로 하는 논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같은 인국어 학과가 많지만 영어영문학과를 제외하고 다른 학과에서는 어학분야의 비중이 미미한 형편이다. 영어학의 연구가 활발하다고 하지만

한국의 거의 모든 영문과가 어학담당 교수 수나 설강 과목 수가 문학에 비해 아주 적다. 영문과에 설강 되는 전체 과목을 편의상 영문학, 영어학, 그리고 기본과목 셋으로 분류하여 각 분야별 과목 수를 조사해 본다. 다음은 그 동안 영문과에서 설강했던 과목 수를 학년도별로 집계한 것이다.

설강과목 수

학년도	영문학	영어학	기본과목	합계	
1968	30	10	14	54	(전과목 2학점)
1974	22	3	5	30	(이하 전과목 3학점, 실험대학)
1975	18	6	4	28	
1976	14	3	5	22	
1977	16	5	4	25	
1978-9	16	5	5	26	
1980	17	6	4	27	
1985-6	16	5+1	6	28	
1987-8	17	5+1	5	28	
1989	16+1	5	5+1	28	
1990	16	7	6+3	32	
1991-2	17	7	5+3	32	
1993-4	16	7	6+3	32	
1995-6	18	7	7	32	
1997-8	17+2	6	7	32	
1999-4	16+2	6	6+2	32	

참고 : (+1, +2, +3은 기초과목이나 교양과목)

실험대학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2학점 과목이 거의 전부였다. 1968학년도에서 보듯이 1, 2학기를 걸쳐 54과목이 모두 2학점 과목이다. 그러나 미국의 학제를 본받은 실험대학 제도가 실시되면서 거의 모든 과목이 3학점으로 바뀌었다. 1975-89년 간에는 설강 과목이 최다 28과목이고 1990-2004년 간에는 똑같이 32과목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전공필수가 없어지고 모두 전공선택으로 바뀌면서 약간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각 분야별 과목 수

도 거의 같은 비율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학 전공 교수 중에는 기본과목도 어학과목으로 간주해서 문학과 어학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언어이론을 잘못 인식한 것이라고 본다. 전체 설강 과목 중에서 영문학 과목이 50-56%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큰 틀에서 볼 때 설강 과목이 분야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재직 전임교수의 전공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 역대 전임 교수

다음으로 강의를 담당해온 전임 및 전임 대우 교수들을 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영문과에 전임 혹은 전임대우로 봉직했거나 하고 있는 교수를 나열하면 내국인은 김주현, 현수길, 김영철, 김대열, 이태주, 선혜리, 심방자, 김이철, 계명일, 한재현, 전은경, 김애령, 이경식, 심정순, 김영호, 최재웅, 김용진, 박준언, 김호영, 이인성, 고광윤, 김명숙 등 22명이요, 외국인은 프린스, 힐러, 릿츠, 브라운, 어칼트, 헤롤드, 휴이, 전스타드, 론도, 도날슨, 고타트 등 11명이다(누락된 분도 있을 수 있음). 년도별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내국인과 외국인 교수의 비율은 2:1로 국내 어느 대학보다 외국인이 많은 편이다. 외국인 교수가 많은 것이 장점인지 단점인지 평가하는 각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원어민 교수를 선호하는 현재의 흐름에서 본다면 국내 어느 영문과와 비교해도 절대 우위에 있다 하겠다. 이들 외국인 교수들이 대부분 1984년에 사임했는데 그 이전에는 많은 원어민 교수들이 강의를 담당해서 학생들의 영어회화와 영어작문 실력이 다른 대학생들에 비교해서 더 우수했다는 것을 당시 졸업생 취업분포가 입증해 주고 있다. 우리 영문과에서는 1970년대부터 원어민 교수들의 강의과목을 많이 설강하고 말하기, 듣기, 쓰기의 기능을 익히는데는 주력해 왔다. 사회 각 분야에서 유능한 영어인력을 필요로 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일찍부터 실시해 왔다. 그런데 지금은 Native Speaker로서의 교수는 단 한 명이다.

그러나 문학이론이나 어학이론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서 영어영문학을 수업하는 학과의 한 부분은 충분하지 못했다고 본다. 이들 외국인 교수들이

자국에서 영문학이나 영어학 강의를 한 경력이 있어서 선진국 대학 영문학과에서 강의하는 내용과 동등한 강의를 한다면 이는 대단한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영어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학과목도 다 강의할 수 있다고 전공강의를 달라고 하는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았다.

### 3. 졸업생의 사회활동

이제 영문과 자체를 큰 선박에 비유해서 지난 50년 간 영문과가 성취한 업적을 찾아보려고 한다. 영문호의 항해방향은 선장이요 선원인 교수들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이 배에 승선해 온 학생들은 교수들이 주는 지적 음식으로 각자의 지식을 키워온 셈이다. 항해를 마치고 하선할 때는 다양한 직업을 구해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많이 진출해 있다. 지금까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수를 보면 학부를 졸업한 학사가 2,381명(주간 2,085명, 야간 296명), 대학원 석사가 168명, 박사가 30명이 이곳에서 학위를 받았다. 이 졸업생들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 진출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첫째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동문들의 활동 상을 소개한다. 최근에는 매년 수십 명이 각종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중고교 교사가 100여명 정도로 영어교육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교장으로 봉직한 동문은 차경환, 탁준과(서울시공립고교장) 등이며 교감의 직분을 가지고 중등교육의 지도자로 활동하는 분도 상당수 있다. 대학에서 전임교수로 활동했거나 하고 있는 분은 이중(숭실대총장)을 비롯하여 김현태(장안대), 배기원(관동대), 김영철(숭실대), 한만수(관동대), 한재현(숭실대), 정정석(인천간호대), 이상오(원광대), 하해성(경상대), 심방자(숭실대), 고명은(목원대), 임기석(재능대), 설준부(서원대), 유우선(제주대), 이경수(원광대), 장용길(고려신학대), 송홍한(동아대), 김호섭(중앙대), 김연태(서울신학대), 김성호(천안외대), 이달영(대한기독교신학대), 최은수(숭실대), 이인성(숭실대), 정무성(숭실대), 김성린(고려신학대), 공성욱(유한공대), 김대빈(서원대), 김동수, 정혜림(아세아신대), 우중현(천안외대), 임왕태(동아방송대), 김인옥(춘천교육대), 김영숙(숭실대), 최미양(인천대) 등 학부출신과 이병주(한남대), 정길정(교원대), 윤기권(선문대), 변정선(한양여대), 최만산(군산대), 우윤식(부산외대), 김한규(성

결대) 이창욱 등 대학원출신과 박사 또는 박사과정 중에 있거나 석사이면서 강의 담당자의 수는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많다. 또 이성민 아나운서(KBS)는 신문방송학 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두 번째 성직자로 목회에 전력하는 동문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신학을 전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교회를 섬기는 자랑스런 목회자도 많다. 승목회(승실대 출신 목회자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목회자는 다음과 같다. 나선철(홍광교회), 조창호(은파교회), 이귀철(순천중앙교회), 박희천(내수동교회), 이종규(금성교회), 이용남(장석교회), 전찬원(한성교회), 강희로(선민교회), 임현영(신성교회), 김영화(서울벚엘교회), 공희윤(둔촌중앙교회), 이정식(춘양교회), 장영두(예일교회), 양재철(경인장로교회), 윤공부(참나무교회), 이인철(기독교세진회), 홍성훈(홍익교회), 김성근(고등교회), 오정현(사랑의교회), 김길홍(부산진교회), 이경중(시흥교회), 손교훈(대구삼덕교회), 신철이(온유한교회), 유백선(보람교회), 박성천(미국유학), 안성근(미국유학), 맹호성, 전윤순(영주교회 오성복(구미교회), 김응창(신도교회), 이만용(영락교회), 하득희 등 파악하지 못한 분들을 포함하면 실로 많은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해 오고 있다.

장로로서 각 교회에서 봉사하는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비록 재학생 시절에는 비기독교인이 많았지만 학교 채플 시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 받고 있다. 초창기 졸업생들은 적어도 40-50% 정도가 장로로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특별히 유제춘 장로는 모교 도서관을 한국의 선진 제도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영문과 사랑에 자존심도 버리고 협력하고 이끌어 왔다.

영어를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졸업생이 아주 많다고 하지만 공무원, 회사원 등으로 봉사하는 졸업생이 더 많으리라 예상된다. 목회자로 헌신하는 기독교 지도자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느 직장이건 승실 출신은 교훈 “진리와 봉사”가 의미한대로 모두가 진실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사회의 지도자 혹은 종교의 지도자로 소임을 충실히 감당한다는 것이다.

셋째 동문회 발전에 공헌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동문회원 간의 친목

과 재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1984년에 송영희(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동문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각고의 정성을 쏟아온 양영욱 회장의 수고와 밑거름이 되어 더욱 활성화가 되리라고 기대된다. 그 뒤를 이어 김현태, 한만수, 오경삼 등이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중책을 맡아 주었다. 장학금 모금 등 재학생을 위한 사업이 큰 결실을 거두리라 본다.

넷째 학생들의 학술활동으로 영어연극을 들 수 있다. 1962년 Stanley Horton 작, 이홍우 연출, 심방자 주연의 *The Dear Departed*가 상연된 후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1984년에 다시 시작되어 199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공연을 활발하게 해왔다. 그 공연연보를 소개한다.

회	연도	작품	연출	기획
1회	1984	Macbeth	Prof. Herold	노종윤
2회	1985	Uncle Tom's Cabin	문충태	정태인
3회	1986	Androcles and the Lion	전태종	김용현
4회	1987	The Skin of Our Teeth	우종현	김규진
5회	1988	The Taming of Shrew	조상희	이광지
6회	1989	ONDINE	안영희	최상일
7회	1990	Romeo and Juliet	기승태	안영선
8회	1991	And Then There Were None	문석민	오인석
9회	1992	Black Comedy	이수정	이석희
10회	1993	A Streetcar Named Desire	유상요	현영덕
11회	1994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재혁	이홍희
12회	1995	Herold and Maude	이민영	박규리
14회	1997	Death of Salesman	박규리	김대중
15회	1998	The Crucible	인재형	서동운
16회	1999	A Doll's House	안병수	인재형
17회	2000	The Sound of Music	박규리	박정제
18회	2001	Macbeth	정병렬	이정균
19회	2002	Little Women	안병수	공수창
20회	2003	The Good Women of Ahsadal	노희준	박아형
21회	2004	The Merchant of Venice	박영아	김용희

마지막으로 영문과 졸업생의 기억에 남는 두분 교수의 수고는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50년 간 이룩해 놓은 영문학의 성취와 위상에 대해 소개한다

면 영문학과를 개설하고 힘들게 학과를 이끌어 온 김주현 교수님의 공을 잊을 수 없다. 그 제자 중에 셰익스피어 문학을 연구하고 대학에서 이 과목을 강의하는 학자들이 상당수 있다. 또 송실 출신으로 모교에서 미국문학을 강의한 김영철 교수의 후배들에 대한 따뜻한 지도와 열심 있는 강의는 많은 감명을 주었다.

송실의 영문학과가 영문학이나 영어학 분야에 더 큰 성취와 더 높은 위상을 달성하려면 대학원 교육을 강화하는 길이 정상궤도일 것이다. 장학제도를 더 확충하고 인재를 발굴해서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고 영미 유학을 장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면 강단에 설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할 의무감도 가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 Ⅲ. 제언

앞으로 영문호가 가야할 방향에 따라 준비물이 다양할 것이다.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하는 즉 학자를 양성하는 일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일 자리를 찾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상식으로 무장하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학자가 되기 위해서나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나 영어를 잘 해야 하는 것은 필수요건이다. 영문과 재학생 다수가 원하는 기관에 취직할 수 있도록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고루 잘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본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문학과 자체의 단기, 중기, 및 장기계획을 세우고 그 실천을 위해 학교당국 과도 밀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어 가는 데는 무엇보다 교수의 의욕 넘치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 요건이다. 물론 전공강의를 성실하게 할 때 영어 실력도 향상한다는 것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기본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일을 잘 감당할 교수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본 대학교 어학원에서 원어민 교수들이 1학년 영어를 담당하는 제도는 높이 평가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리라 본다.

송실대학의 위상을 더욱 높이려면 영문과 교수들의 열성과 희생과 그 위



여러 교수들의 전적인 협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학교 당국의 장기발전계획으로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는 야심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한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필자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1. 영어대학 설립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과 비슷한 방법으로는 경쟁에서 앞서 가기에 필요한 여건들이 오히려 열악한 편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예시하기보다 극복하고 앞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문과 주야간을 근거로 영어대학으로 개편한다.

- a. 전공은 영문학, 영어교육, 그리고 실용영어의 세 전공을 개설한다.
- b. 기초과목으로 세 전공 모두에 영어회화와 영어작문을 많이 설강 한다.
- c. 전공과목은 최소화하고 깊이 있는 학문은 대학원과정을 강화한다.
- d. 강의진행은 주로 영어로 한다.
- e. 재학 중 일년은 미국내 자매학교나 분교에서 학점을 이수한다.
- f. 학장은 선진국 원어민을 초빙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한다면 명실공히 우수한 영어인력을 양성함은 물론, 학교 전체의 위상이 상승하리라 생각된다. 학내 전체 학생들에게도 영어를 잘 배울 기회가 확대되어 영어교육을 전공한 교수에게 영어를 배울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단기 계획으로 관심 있게 추진하기를 바라는 안을 나열한다.

- (1) 영어로 강의하는 과목의 수를 점점 늘려 가는 프로그램
- (2) 작문이나 회화강좌의 수강생 수를 적정하게 한정하는 것
- (3) 사명감 있는 native speaker 교수 초빙
- (4) 어학원과 공동으로 취직 영어반 개설

영문학의 위상을 높임으로 영문학 자체는 물론 학교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선구자적 길을 개척하는 일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 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전체가 협력하여 많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맺는다.

【Abstract】

## The Achievements of English Studies at Soongsil University

Han, Jae-Hyeon

The increasing emphasis on the practical aspect of English education in Korea has caused a great anxiety about the identity and status of English Studies at universities. The main reason for the alarm seems to be the rapid growth of the fields of English Linguistics and Language Education within English department, which some people believe has led to the declining of the studies of English literature and consequently threatened the status of English Studies in general. My essay looks at the history of English Department at Soongsil University for the past fifty years and suggests that the status of English Studies in Korea is actually on the rise. I will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number of faculty and changes in the curricula in my 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 of English Department at Soongsil. Statistics shows that the proportion of native speakers on the faculty in English Department has been considerably high, especially in 1970s and early 1980s. Although there are obvious problems with hiring too many native speakers--for example, most of them are not qualified to teach specialized topics of English Studies such as literary or linguistic theories--it has some positive effects, as is illustrated by the success of Soongsil graduates in the job market in 1970s and early 1980s. Compared with students from competing universities, these students were well trained in writing and speaking in English. A close look at the changes in the curricula also demonstrates the efforts the department has been making in

order to help the students prepare for their future careers: the most important goal of curriculum development has been providing students with balanced education in English literature, linguistics, and language education. I conclude my essay by suggesting that we should develop English Department into English College that will extend the benefits of education in critical thinking, speaking, and writing skills to students from other disciplines.

**Key Words** : native speakers on the faculty, English College, critical thinking, students' future careers, curriculum development